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입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박 창 우(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사회복지/상담 5-1)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입양사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태도, 느낌, 신념, 가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분류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세속적 입양옹호형 - 세속적 가치에 근거하여 입양을 지지하고, 입양의 긍정적 측면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유형
- ② 감정적 해외입양비관형 - 입양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형
- ③ 현실적 입양회피형 - 우리 사회에서 입양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유형
- ④ 신앙적 입양확신형 -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입양을 바라보고, 지지하며,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형
- ⑤ 소극적 비밀입양지지형 - 입양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입양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비밀입양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유형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삶의 전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복지 전문성이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는 기독교복지 실천방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입양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복지, 입양, Q방법론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I. 서론

1. 문제 제기

현실 사회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중적 측면이 존재하지만¹⁾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존경과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를 선하게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악하고 힘든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남다르다. 사회복지의 가치가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회복지라는 생각, 사회복지실천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의무라는 소명의식은 이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고²⁾, 이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이지만 자신의 직무에 만족해하며 직장생활을 한다.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은 조직에 대한 헌신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연구들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 인정, 직무에서 오는 보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급여, 근무여건 등이 직무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남선희 외, 2006: 213-216; 강홍구, 2006: 371-372; 김욱·원영희, 2008: 247-249).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삶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사명감 혹은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고, 클라이언트의 삶과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다’와 같은 신념 혹은 사명의식이 없다면 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는 낮아질 것이고, 이

1)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복지서비스가 인간의 게으름, 나태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의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특성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과 죄인의 이중적 특성을 지닌 존재이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창우, 2010: 90).

2) “저는 사회복지의 뿌리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예수님이 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셨던 것들이 바로 지금의 어떤 사회복지활동인데...(이하 중략)”,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단지 사회복지사로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이하 중략)”(김희수·양혜원, 2008: 130-131)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직업과 신앙을 통합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업무에 대해 긍정적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회복지기관과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입양기관 사회복지사 역시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 혹은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 국외입양에 대한 민감한 반응 등으로 우리 사회는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는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이어져 이들을 ‘아이를 매매하는 자’로 비하하여 보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신의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갈등은 결국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 본인의 삶은 물론 궁극적으로 입양사업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입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입양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각 유형별 특성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그들의 직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태도, 느낌, 신념, 가치, 인식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Dennis, 1986: 8) Q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Q방법론은 문제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연구 방법으로서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의식구조 및 그 집단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추적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며(신원식·이경은, 2005: 61), 오늘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많은 영역은 Q방법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김홍규, 2009: 216).

II.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연구 동향

입양에 대한 국내연구는 다른 사회복지분야의 연구에 비해 제한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비밀입양 전통으로 연구자들이 입양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입양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입양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양과 관련한 국내연구는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김경주, 1998; 박미정, 2001; 박인선, 1994; 심석순, 2000; 이미선, 2001), 사후서비스에 관한 연구(김대열, 1999; 김선경, 2003; 정진아, 2000), 입양관련 법·제도·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배태순 1993,

1995, 1998; 정순란, 2005; 허남순, 1994)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입양에 대한 인식, 태도 등과 관련한 논문이므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양인식, 태도 등에 관한 국내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입양인식, 태도 등과 관련한 국내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연구대상	주요 결과
고영화 (2005)	불교신도의 입양인식	불교신도 300 명, 타종교신도 200명, 설문조 사	-입양인식 : 자녀가 없어서, 아동동기(불교-39.4%, 타종교 -23.8%)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 : 국내입양, 시설양육, 일가친 척 보호 순 -입양동기 : 복을 짓는 마음(불교-29%, 타종교-21%), 아 이들에게 회향하려는 마음(불교-28%, 타종교-15%)
김양임 (1995)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국민의식	일반국민 263 명, 설문조사	-입양에 대한 생각 : 생각해 본 적 있다(81%) -입양을 생각하게 된 동기 : 입양기사, 버려진 아동을 보 고 -입양저해요인 : 입양아동의 적응문제, 혈연주의, 경제적 여건
배태순, 허남순, 권지성 (2006)	입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일반국민 1,721 명, 설문조사	-입양관심 : 있다(54%) -입양필요성의 동기 : 불우아동을 보고(60%), 매스컴 홍 보(20%) -입양동기 : 자식을 더 원해서(26.3%), 불우한 아동을 위 해(22.8%) -입양의사 : 있다(43.5%) -불입인 경우 : 고려한다(90%) -입양의사 없는 이유 : 양육에 대한 책임감(25%), 미혼이 라서(15%), 나이가 많아서(15%)
서경숙 (2003)	전라북도 주민의 입양에 대한 태도	전북지역 주민 200명, 설문조 사	-입양인식 : 자녀가 없어서(51%), 자녀를 더 원해서 (17.5%), 불우아동을 위해(13%) -입양의사 : 없다(53.8%), 지금은 없으나 나중에 할 수도 있다(32.5%) -입양을 원치 않는 이유 : 경제적 부담, 핏줄이 아니다, 유전적 질병, 친부모 출현 순 -입양편견요인 : 혈연주의
진경재 (2006)	국내입양에 대한 도시와 농촌 간의 비교	도시/농촌 거주 자 240명, 설문 조사	-입양의 필요성 : 있음(도시-81.7%, 농촌-74.6%) -입양의사 : 없음(도시-51.7%, 농촌-49.2%) -입양저해요인 : 아동부적응, 경제적 부담, 친자녀처럼 사 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종민 (2003)	국내입양 국민의식과 활성화 방안	청주시민 20대 이상의 성인남 녀 370명, 설문 조사	-입양을 꺼리는 이유 : 입양아동의 적응문제, 정신적·육체 적 부담, 경제적 부담 -입양을 하려는 동기 : 불우아동을 위해, 형제가 필요해 서, 아이를 나올 생각이 없어서 -국내입양의 문제점 : 혈통주의 -입양활성화를 위한 주제 : 국민과 국가
홍순혜, 박미정 (2007)	국민의 입양인식과 입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국 5개 대도 시 성인남녀 1,163명, 설문 조사	-입양의사 : 없음(44.6%) -요보호아동의 주책임자 : 국가(48.3%), 친부모 또는 친척 (36.1%) -요보호아동의 바람직한 양육형태 : 입양(32.1%), 시설보 호(24.5%), 친인척의 대리양육(25.0%), 가정위탁양육 (18.3%) -입양을 선택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 양육 부담, 성장과 정에서의 문제, 사회적 편견

표1과 같이 입양인식, 태도 등과 관련한 국내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양적인 설문조사 연구였고,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Q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태도, 느낌, 신념, 가치, 인식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2. 국외연구 동향

입양의 역사가 길고,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개입양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입양에 관한 국외연구는 국내연구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게 진행되었다. 입양인식, 태도 등에 관한 국외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입양인식, 태도 등과 관련한 국외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주요 결과
Carter-Black, J. (2002)	인종 간 입양과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인 사회복지사 10명을 심층면접하여 인종 간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 입양 및 가정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라고 응답함 - 흑인 사회복지사들은 소수민족의 아이들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아래에서 자라야 할 필요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봄 - 문화적 배경, 인종적 장벽 등에 대한 우려에도 적절한 훈련과 지지가 있다면 백인부모가 흑인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봄
Hoksbergen, R.A.C. (1998)	입양에 대한 시대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이전(전통적 폐쇄) : 비밀입양 위주였고, 불임부부가 같은 인종의 아이를 입양했음. 사회적으로 입양이 금기시 되었음 - 1970~1985(이상적 개방) : 가임부부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해외입양과 인종 간 입양이 증가했음. 입양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뀜. 입양에 대한 낭만적 이상적 태도 - 1985년 이후(물질적 현실주의) : 해외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가 대두됨. 해외입양에 대한 현실적 접근. 가임부부의 입양신청률이 줄어들었음
March, K. (1995)	입양인들이 생각하는 입양에 대한 스티그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명의 입양인들에게 입양에 대한 인식 조사 - 양부모가 친부모와 다른가라는 질문에 44%가 다르지 않다고 응답, 37%는 생물학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르다고 응답, 19%는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더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응답함 - 입양인이 친자녀처럼 동일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났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음(연구대상자의 76%) - 입양인들은 친모와의 상봉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었음. 하지만 친부모와의 상봉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를 해소한 것은 아님
Moos, A. & Mwaba, K. (2007)	인종 간 입양에 대한 신념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명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종 간 입양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대해 조사 - 인종 간 입양에 대해 찬성(87%) - 백인부모에 입양된 흑인아동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96%) - 인종 간 입양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적·문화적 관용을 향상시킬 것임(88%)
Spivey, C.A. (2006)	동성커플 입양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기관 사회복지사(31명)와 아동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34명)이 가지고 있는 동성커플의 입양에 대한 인식 조사 - 성역할 평등주의 척도, 입양부모로서 동성커플을 향한 태도 척도 등으로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성역할에 대한 신념은 입양부모로서 동성 커플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p>Tyebjee, T. (2003)</p>	<p>입양과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태도 및 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1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양과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태도, 의지, 동기 등에 대한 조사 - 응답자의 91%가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5%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 백인이 흑인과 히스패닉보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세입자보다, 주변에서 입양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양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60%가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26%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 응답자 중 젊은 세대의 사람들과 주변에서 입양과 위탁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이 위탁보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	-------------------------------	--

입양인식, 태도 등과 관련한 국외선행연구들 역시 Q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국외선행연구들에서 실시하지 않은 연구 방법을 활용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입양에 관한 인식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로서, 심층면접과 문헌고찰 등을 통하여 입양에 관한 Q표본을 선정하였고, 그리스도인 입양기관사회복지사를 연구대상(P표본)으로 Q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절차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문헌고찰 및 심층면접을 통해 Q모집단(진술문)을 구성하였고, 2단계에서는 Q표본을 선정하고, Q카드 제작과 Q표본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P표본을 선정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응답자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강제분포된 양식에 맞게 분류하는 Q분류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료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Q모집단(Q-Population) 구성

우선 입양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입양기관 사회복지사가 느낄 수 있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특성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입양관련 자료집, 입양기관 내부문헌, 입양관련 논문, 매스미디어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입양기관 사회복지사 4명(근무기간 2년차/8년차/17년차/26년차)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제는 ‘입양에 대한 주관적 생각’, ‘입양기관에 다닌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 ‘기독교 신앙과 입양의 관계에 대한 생각’, ‘부정적인 입양관련 기사를 접했을 때의 심정’, ‘우리 사회의 입양에 관한 인식’,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국내입양활성화 방안’, ‘입양부모에 대한 느낌’,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로서의 고충’에 관한 것이었다.

면접은 2010년 8월 2일 이루어졌고, 면접시간은 각각 45~7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내용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본 연구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입양에 관한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문헌고찰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작성된 진술문은 모두 127개였다.

2) Q표본(Q-Sample) 선정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127개 Q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제별로 공통된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 중 주제에 관한 대표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40문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40문항은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인과 Q방법론의 연구 경험이 있는 언론학 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해 35문항으로 간추려졌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정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하도록 진술문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Q표본은 <표3>과 같다.

<표3> Q표본

번호	진술문
1	입양은 부모 없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복지제도이다.
2	조건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나도 입양을 꼭 하고 싶다.
3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4	경제적 발전을 했다고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5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친자식과 다름없이 키운다.
6	우리나라(민족)의 아이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
7	해외입양을 위해 출국하는 아동들을 보면 기분이 우울해 진다.
8	해외입양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9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기는 힘들다.
10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입양아동이 행복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1	입양사업은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12	우리 사회는 입양을 감정적으로 본다.
13	손해를 보더라도 입양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4	공개입양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비밀입양을 하는 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5	입양을 적게 보더라도 입양조건을 까다롭게 해 적절한 가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16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독신자 가정, 동성부부에게도 입양은 허용되어야 한다.
17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이란 경제적으로 풍요한 가정이다.
18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양가정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다 많이 주는 것이다.
19	입양은 봉사하는 것이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	아동의 미래를 내가 대신 선택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21	입양은 사회저명인사들(기업인,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이나 하는 것이다.
22	입양은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23	성장한 입양인이 왜 나를 입양보냈느냐고 원망할까 두렵다.
24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편이다.
25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입양을 보내는 것이기에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떳떳하다.
26	입양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싫다.
27	입양관련 기사의 댓글보기가 겁난다.
28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입양의 긍정적 측면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지 못해 답답하다.
29	입양기관 종사자로서의 고충에 대해 도움이나 충고를 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 힘들다.
30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보람되며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다.
31	저출산사회에서 해외입양으로 아동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2	입양기관은 다른 사회복지기관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33	직업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34	부모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이다.
35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3) P표본(P-Sample)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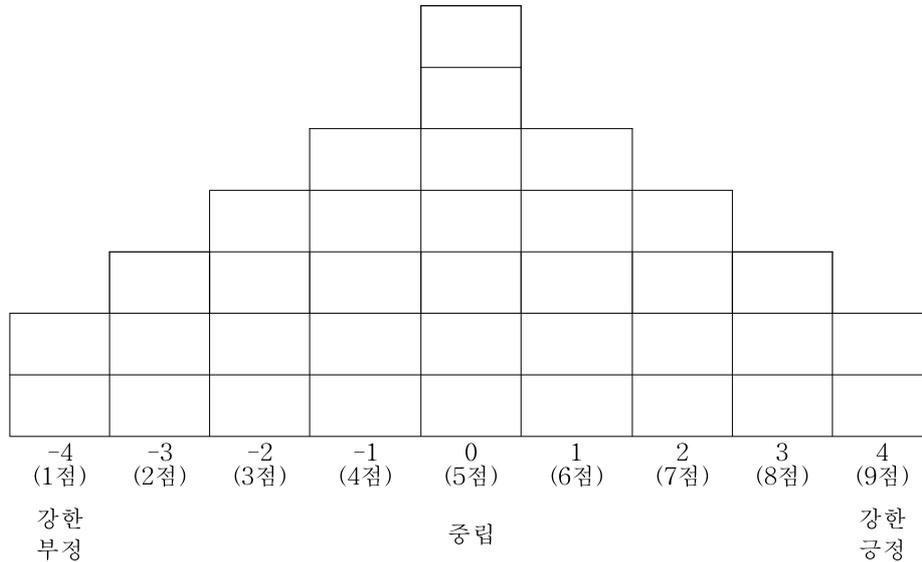
Q방법론은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아닌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방법론이므로 연구대상자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Q방법론이 연구대상 개인 간(inter-individual difference)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에 있는 중요성(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의 차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Q방법론에서는 적은 수의 표본이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김홍규, 2009: 117-118).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입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 8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Q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Q방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8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7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자의 근무경력은 1년 미만에서 34년까지,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를 포괄하였다. 조사는 2010년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에 의해 이루어졌다.

<표4> P표본

유형	ID	인자 가중치	성별	나이	근무 경력	유형	ID	인자 가중치	성별	나이	근무 경력
1 (n=27)	58	1.4021	남	38	8	3 n=8	43	2.6832	여	30	8
	10	1.3869	여	52	25		40	2.1352	여	27	3
	59	1.2831	남	40	16		41	2.0344	여	42	10
	28	1.2522	남	33	3		42	1.9965	남	34	7
	72	1.2421	남	61	19		5	1.5993	남	42	17
	65	1.0750	남	37	1		4	1.4236	남	42	11
	30	1.0188	여	26	2		3	1.3023	남	45	20
	60	.9041	남	28	3		13	.9308	여	25	1
	45	.8986	여	57	25	38	6.2300	여	35	10	
	22	.8422	남	60	34	39	4.8544	여	43	19	
	63	.8219	여	58	23	37	4.1391	여	39	16	
	29	.8167	여	24	1	1	3.9010	남	39	8	
	14	.8162	남	27	1	2	3.1360	여	39	15	
	16	.7284	여	56	28	26	1.3755	여	27	1	
	74	.7257	남	38	11	24	1.2988	여	25	1	
	44	.7248	여	47	23	55	1.2040	여	27	2	
	15	.7106	여	26	1	54	1.1530	남	44	18	
	17	.7090	남	43	18	21	1.0183	여	58	27	
	48	.7078	여	57	20	71	1.0062	여	26	1	
	9	.6910	남	39	14	19	1.0018	여	29	1	
	52	.6844	여	24	2	7	.9582	여	52	27	
	56	.6653	남	55	25	68	.9425	여	40	20	
	53	.6007	여	25	3	25	.9168	여	35	10	
	57	.5975	여	24	1	23	.9019	여	39	20	
	51	.5840	여	26	2	20	.8978	여	30	6	
	62	.5774	여	26	3	73	.8841	남	45	20	
	12	.5547	남	57	18	11	.8839	여	33	8	
2 (n=10)	46	2.7253	남	61	27	69	.7813	여	27	3	
	47	1.7129	여	38	10	27	.6867	여	51	18	
	67	1.4672	여	53	31	64	.6478	남	31	2	
	66	1.4307	여	40	15	33	.4499	여	34	8	
	6	1.2469	여	36	12	50	.9754	여	56	33	
	31	1.2372	여	54	25	61	.9144	남	44	18	
	70	1.1519	여	44	20	18	.8226	남	30	3	
	32	.9762	여	27	3	49	.7795	여	40	15	
	8	.8968	여	29	3	34	.6035	여	49	26	
	36	.5918	여	38	11	35	.5389	남	26	1	

4) Q분류(Q-Sorting)

원활한 조사를 위해 Q표본으로 선정된 35개의 진술문을 카드 형태로 제작하여, 이를 P표본인 연구대상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연구대상자들은 35개의 진술문을 다 읽은 후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4)’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매수대로 카드를 분류하였다. 이 때 의견이 정상분포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Q방법의 원리에 따라 강제분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림1> Q표본 분포도

5) 자료 처리 및 분석

P표본으로 선정된 74명의 자료를 점수화하기 위해서 Q표본 분포도에서 강한 부정인 경우(-4)는 1점, 중립인 경우(0)는 5점, 강한 긍정인 경우(+4)는 9점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하였고,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Q유형의 형성

자료분석 결과,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입양에 대한 인식 유형은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전체 연구대상자 74명 가운데 제1유형에 속한 사람은 27명, 제2유형은 10명, 제3유형은 8명, 제4유형은 23명, 제5유형은 6명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표4).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을 분석한 결과, 5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약 62.88%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이 40.01%, 제2유형이 10.09%, 제3유형이 6.14%, 제4유형이 3.70%, 제5유형이 2.95%로 나타났다(표5). 또한 각 유형 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상관관계는 표6과 같이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유형 간 차별성이 뚜렷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5〉 유형 별 인자가중치와 변량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Eigen Value	29.6046	7.4641	4.5414	2.7403	2.1795
Variance	.4001	.1009	.0614	.0370	.0295
Cumulative Variance	.4001	.5009	.5623	.5993	.6288

〈표6〉 유형 간의 상관관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1유형	1.000				
제2유형	.450	1.000			
제3유형	-.065	.167	1.000		
제4유형	.704	.222	-.197	1.000	
제5유형	.711	.499	-.039	.585	1.000

2. 유형 별 특성

1) 유형 1 : 세속적 입양옹호형(n=27)

유형1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찬성(동의)하는 항목은 ‘입양은 부모 없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편이다’ 등이다. 반면에 유형1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반대(동의하지 않는)하는 항목으로는 ‘입양은 사회저명인 사들(기업인,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이나 하는 것이다’,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독신자 가정, 동성부부에 계도 입양은 허용되어야 한다’,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등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에 근거하여 입양을 지지하고, 입양의 긍정적 측면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해외입양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독신가 가정 및 동성부부 입양, 입양은 사회저명인사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진술문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과 신앙을 분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입양을 바라보는 데 있어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종합하여 1유형을 ‘세속적 입양옹호형’으로 명명하였다.

<표7> 유형 1의 특성

Q 진술문	Z-Score
1. 입양은 부모 없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복지제도이다.	2.48
3.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1.67
24.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편이다.	1.48
25.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입양을 보내는 것이기에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떳떳하다.	1.38
13. 손해를 보더라도 입양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02
27. 입양관련 기사의 댓글보기가 겁난다.	-1.01
35.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1.19
26. 입양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싫다.	-1.30
8. 해외입양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1.30
16.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독신자 가정, 동성부부에게도 입양은 허용되어야 한다.	-1.31
21. 입양은 사회저명인사들(기업인,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이나 하는 것이다.	-2.20

<표8>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긍정 또는 부정하는 항목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점수	점수 차이
24.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편이다.	1.482	.044	1.437
3.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1.672	.277	1.394
13. 손해를 보더라도 입양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022	-.107	1.128
29. 입양기관 종사자로서의 고충에 대해 도움이나 충고를 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 힘들다.	-.467	.711	-1.178
8. 해외입양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1.303	-.082	-1.221

2) 유형 2 : 감정적 해외입양비관형(n=10)

유형2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찬성하는 항목은 ‘입양은 부모 없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복지제도이다’, ‘해외입양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해외입양을 위해 출국하는 아동들을 보면 기분이 우울해 진다’ 등이 있다. 반면에 유형2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반대하는 항목으로는 ‘입양은 사회저명인사들(기업인,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이나 하는 것이다’,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등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입양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1유형과는 달리 해외입양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외입양을 위해 출국하는 아동들을 보며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해외입양보다는 시설보호나 위탁보호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유형 1과 같이 2유형에서도 직업과 신앙을 분리하는 경향, 입양을 바라보는데 있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에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따라서 2유형 역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입양을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2유형을 ‘감정적 해외입양비관형’으로 명명하였다.

<표9> 유형 2의 특성

Q 진술문	Z-Score
1. 입양은 부모 없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복지제도이다.	1.91
14. 공개입양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비밀입양을 하는 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64
8. 해외입양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1.30
33. 직업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1.19
7. 해외입양을 위해 출국하는 아동들을 보면 기분이 우울해 진다.	1.10
3.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1.08
9.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친자처럼 사랑하기는 힘들다.	-1.14
16.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독신자 가정, 동성부부에게도 입양은 허용되어야 한다.	-1.56
35.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1.69
21. 입양은 사회저명인사들(기업인,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이나 하는 것이다.	-1.75

<표10> 유형 2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긍정 또는 부정하는 항목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점수	점수 차이
8. 해외입양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1,298	-.733	2.030
6. 우리나라(민족)의 아이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	.919	-.791	1.710
7. 해외입양을 위해 출국하는 아동들을 보면 기분이 우울해 진다.	1.095	-.436	1.532
33. 직업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1.185	.245	.940
18.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양가정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다 많이 주는 것이다.	-.847	.459	-1.305
3.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1.085	.967	-2.052

3) 유형 3 : 현실적 입양회피형(n=8)

유형3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찬성하는 항목은 ‘입양은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입양아동이 행복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입양기관은 다른 사회복지기관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등이다. 반면에 유형3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반대하는 항목으로는 ‘입양사업은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보람되며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다’,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편이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나도 입양을 꼭 하고 싶다’ 등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입양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입양인으

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입양할 의사가 없으며,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없었으며, 앞의 두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직업과 신앙을 분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형 3을 ‘현실적 입양회피형’으로 명명하였다.

<표11> 유형 3의 특성

Q 진술문	Z-Score
22. 입양은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1.71
10.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입양아동이 행복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36
14. 공개입양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비밀입양을 하는 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30
12. 우리 사회는 입양을 감정적으로 본다.	1.25
18.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양가정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다 많이 주는 것이다.	1.17
33. 직업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1.13
32. 입양기관은 다른 사회복지기관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1.08
4. 경제적 발전을 했다고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1.10
2. 조건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나도 입양을 꼭 하고 싶다.	-1.41
24.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편이다.	-1.49
30.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보람되며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다.	-1.55
11. 입양사업은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2.02

<표12>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긍정 또는 부정하는 항목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점수	점수 차이
10.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입양아동이 행복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362	-.291	1.654
17.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이란 경제적으로 풍요한 가정이다.	.735	-.858	1.592
27. 입양관련 기사의 댓글보기가 겁난다.	.706	-.742	1.449
19. 입양은 봉사하는 것이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990	-.287	1.277
25.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입양을 보내는 것이기에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몇몇하다.	-.407	1.116	-1.523
24.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편이다.	-1.492	.788	-2.280

4) 유형 4 : 신앙적 입양확신형(n=23)

유형4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찬성하는 항목은 ‘입양은 부모 없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복지제도이다’,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보람되며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다’,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

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등이다. 반면에 유형4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반대하는 항목으로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독신자 가정, 동성부부에게도 입양은 허용되어야 한다', '부모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이다', '우리나라(민족)의 아이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 '직업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입양을 바라보고, 지지하며,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민족의 아이는 우리가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생각, 부모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이라는 생각, 독신가 가정 및 동성부부에게도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하여 입양을 바라보고 있었고, 직장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종합하여 4유형을 '신앙적 입양확신형'으로 명명하였다.

<표13> 유형 4의 특성

Q 진술문	Z-Score
1. 입양은 부모 없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복지제도이다.	1.96
30.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보람되며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다.	1.56
25.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입양을 보내는 것이기에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떳떳하다.	1.46
3.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1.34
35.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1.10
15. 입양을 적게 보내더라도 입양조건을 까다롭게 해 적절한 가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4
23. 성장한 입양인이 왜 나를 입양보냈느냐고 원망할까 두렵다.	-1.02
7. 해외입양을 위해 출국하는 아동들을 보면 기분이 우울해 진다.	-1.19
9.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친자처럼 사랑하기는 힘들다.	-1.31
6. 우리나라(민족)의 아이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	-1.49
34. 부모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이다.	-1.66
16.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독신자 가정, 동성부부에게도 입양은 허용되어야 한다.	-2.01

<표14> 유형 4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긍정 또는 부정하는 항목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점수	점수 차이
35.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1.105	-1.406	2.511
30. 입양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보람되며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다.	1.557	-.290	1.847
2. 조건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나도 입양을 꼭 하고 싶다.	.896	-.333	1.229
6. 우리나라(민족)의 아이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	-1.488	-.190	-1.298
16.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독신자 가정, 동성부부에게도 입양은 허용되어야 한다.	-2.007	-.425	-1.582
33. 직업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867	.758	-1.624

5) 유형 5 : 소극적 비밀입양지지형(n=6)

유형5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찬성하는 항목은 ‘공개입양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비밀입양을 하는 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입양은 부모 없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입양기관 종사자로서의 고충에 대해 도움이나 충고를 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 힘들다’ 등이다. 반면에 유형5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반대하는 항목으로는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기는 힘들다’,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등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입양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입양아동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비밀입양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1유형(세속적 입양옹호형)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유형이 입양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고, 공개입양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5유형은 입양에 대한 소극적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비밀입양을 하는 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특성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5유형을 ‘소극적 비밀입양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표15> 유형 5의 특성

Q 진술문	Z-Score
5.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친자식과 다름없이 키운다.	1.70
14. 공개입양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비밀입양을 하는 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66
1. 입양은 부모 없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복지제도이다.	1.62
29. 입양기관 종사자로서의 고충에 대해 도움이나 충고를 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 힘들다.	1.14
3.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외입양이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보다는 낫다.	1.07
10.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입양아동이 행복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06
35.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1.06
17.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이란 경제적으로 풍요한 가정이다.	-1.08
21. 입양은 사회저명인사들(기업인,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이나 하는 것이다.	-1.43
34. 부모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이다.	-1.69
9.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기는 힘들다.	-2.07

<표16> 유형 5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긍정 또는 부정하는 항목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점수	점수 차이
29. 입양기관 종사자로서의 고충에 대해 도움이나 충고를 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 힘들다.	1.141	.309	.832
14. 공개입양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비밀입양을 하는 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658	.987	.671
28.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입양의 긍정적 측면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지 못해 답답하다.	.334	-.151	.485
22. 입양은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416	.870	-.454
17.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이란 경제적으로 풍요한 가정이다.	-1.079	-.405	-.674

V. 결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사명감 혹은 긍정적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매매하는 자’로 비하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입양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탐색해 보았으며, 이들의 인식유형을 세속적 입양옹호형, 감정적 해외입양비관형, 현실적 입양회피형, 신앙적 입양확신형, 소극적 비밀입양지지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들이 직업과 신앙을 분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앙적 입양확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들이 ‘직업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긍정(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적 영역(주일성수, 교회 내 봉사, 헌금 등)만 강조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의 일상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하는 한국교회의 이원론적 특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많은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입양에 있어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양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의견에 동의한 유형은 신앙적 입양확신형 밖에 없었다.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중립적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적 전제들을 고의적으로 배제시켜 왔고, 기독교 신앙과 사회복지 실천의 연관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 중 상당수는 입양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입양의 긍정적 측면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지 못해 답답하다’는 의견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많았으며, 일부의 사회복지사(세속적 입양옹호형)만이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편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을 삶의 전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교회 내에 퍼져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제거해야 한다. 이원론적 사고는 현실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그 동안 한국 교회는 거룩한 것을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시켜 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의 생활만 중요하게 여기고, 직장, 가족, 사회에서는 비그리스도인과 아무런 차이 없이 생활하는 잘못을 범해왔다. 하지만 종교적 영역은 그 자체로 강조되기 보다는 일상적 영역에 있어 지침과 원동력으로 기능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밖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업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의 생활 뿐 아니라 직장,

가족, 사회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복지 전문성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기독교복지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기독교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사회복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고, 기독교복지 실천현장을 만드는 것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 일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기존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지적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복지의 실천방안 및 모형 등을 개발하기 위한 학계 및 실천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학교의 사회복지 교육,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수 교육, 목회자 및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교육 등이 보다 활발하게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단, 대형교회, 기독교복지재단 등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러한 실천현장에서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들이 신앙과 직업을 조화롭게 통합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입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입양기관 종사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입양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양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이고, 입양은 요보호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매우 존귀한 일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건한 행위이기 때문에 입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신원하, 2003: 10-20; 강춘근·신민선, 2005: 18-27). 또한 혈연주의, 경제적 관점, 민족적 관점, 자존심 문제 등의 이유로 입양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적 측면에서 입양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 입양인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잘못된 사회구조와 왜곡된 인간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박창우, 2010: 112-113). 이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입양을 바라볼 때에만 입양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그리스도인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들 중 일부는 감정적 해외입양비판형, 현실적 입양거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입양인식으로는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고, 사명을 갖고 입양사업에 종사하며, 양질의 입양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입양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입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춘근·신민선 (2005), "입양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신앙과 학문』, 10(2), 9-50.
- 강홍구 (2006),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3), 355-375.
- 고영화 (2005), 불교신도의 입양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주 (1998), 해외입양인과 친부모 만남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대열 (1999), 해외입양인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 (2003), 해외입양인 모국방문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임 (1995), 우리나라 국내입양 활성화방안을 위한 국민의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원영희 (2008),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 하위요인과 전반적 직무만족 간의 관계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221-254.
- 김홍규 (2009), 『Q 방법론 -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희수·양혜원 (2008),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앙과 학문』, 13(3), 115-164.
- 남선희 외 (2006),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자기효능감과 요인별 직무만족이 전반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95-221.
- 박미정 (2001), 입양후 재상봉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선 (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창우 (2010),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입양의 이해 및 평가," 『신앙과 학문』, 15(1), 89-116.
- 배태순 (1993), "국내입양문제와 관련한 입양법 개정 제안,"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1-22.
- _____ (1995), "입양사업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3호, 107-126.
- _____ (1998), "국내입양발전을 위한 입양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입양법 개정 제안,"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127-155.
- 배태순·허남순·권지성 (2006), 『입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 연구발표세미나』, 경기: 한국입양홍보회.
- 서경숙 (2003), 전라북도 주민의 입양에 대한 태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원식·이경은 (2005),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사회보장연구』, 21(1), 59-84.
- 신원하 (2003), "기독교 신앙과 입양 - 입양의 신학적 토대," 『온누리교회 입양배우기 자료집』, 10-20.
- 심석순 (2000), 해외입양인 친부모찾기 지원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2001),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란 (2005), 국내입양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아 (2000), 해외입양인의 한국 내 사후관리 욕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경재 (2006), 국내입양에 대한 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인식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종민 (2003),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 (1994), 국내입양사업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순혜·박미정 (2007), "국민의 입양인식과 입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 교 사회과학논총』, 제14집, 73-95.
- Carter-Black, J. (2002), "Transracial Adoption and Foster Care Placement: Worker Perception and Attitude," *Child Welfare*, Vol.81, No.2, 337-370.
- Dennis, K. E. (1986), "Q Methodology: Relevance and Application to Nursing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Vol.8, No.3, 6-17.
- Hoksbergen, R.A.C. (1998), "Changes in Motivation for Adoption, Value Orientations and Behavior in Three Generations of Adoptive Parents," *Adoption Quarterly*, Vol.2, No.2.
- March, K. (1995), "Perception of Adoption as Social Stigma: Motivation for Search and Reun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7, No.3, 653-667.
- Moos, A., Mwaba, K. (2007), "Beliefs and attitudes about transracial adoption among a sample of South African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35, No.8, 1115-1120.
- Spivey, C.A. (2006), "Adoption by Same-Sex Coupl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s and Social Work Student Sex-Role Beliefs and Attitudes," *Journal of GLBT Family Studies*, Vol.2, No.2.
- Tyebjee, T. (2003), "Attitude, Interest, and Motivation for Adoption and Foster Care," *Child Welfare*, Vol.82, No.6, 685-706.

Subjective Recognition Type with Regard to Adoption by the Social Workers of Christian Adoption Institutions

Chang-Woo Park(Kwan 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kinds of recognition social workers of Christian adoption institution have of the adoption business. For this, the study uses the Q methodology, which is useful for finding out the attitude, feeling, belief, and value, etc of a human being.

The types of recognition by social workers, which were classified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① Secular adoption vindication type - This is a type in which the believers support adoption based on earthly values and have a firm belief in the positive aspect of adoption.
- ② Emotional foreign adoption criticism type - This is a type in which the believers have positive thinking about the adoption system itself, but they have objections toward foreign adoption.
- ③ Realistic adoption avoidance type - This is a type in which the believers think that adoption is recognized negatively in our society, and they don't even take pride in the fact that they work at adoption institutions.
- ④ Religious adoption assurance type - This is a type in which the believers look at and support adoption based on Christian perspective of the world, and also have a sense of mission and pride in working at adoption institutions.
- ⑤ Passive secret adoption support type - This is a type in which the believers consider the adoption system itself but are pessimistic toward the fact that adopted persons have a happy life, and also realistically recognize secret adoption.

In this study, seen through these results, I have suggested a training program, which can apply a Christian world perspective to all fields of life, the practice plan of Christian welfare, in which Christian values and professionalism of social welfare can be integrated harmoniously, and an educational program in which adoption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from a Christian viewpoint.

Key Words :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Welfare, Adoption, Q Methodology